

## 제 3강 자아의식의 발달사

### ‘자아의식’의 형성 및 분화에 관하여

융은 ‘자아’가 처음부터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의식’의 파편들을 모아서 비로소 형성되는 영역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동의 ‘의식’은 무의식적 심적 삶의 심층들로부터 드러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제각기 따로 파편처럼 떨어져 있는 섬과 같은 것이 점차 합해져서 하나의 대륙, 즉 서로 연결된 ‘의식’으로 통합된다. 그리고 정신적 발달과정은 ‘의식’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의식’은 언제나 자아의식(Ichbewußtsein)이다. ‘나’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나’는 타인과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이런 구분이 가능하게 되면 관계도 생겨난다.<sup>1)</sup>

한 개인의 인격은 ‘자아의식’의 등장으로 시작되며, ‘자아의식’의 등장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본능’에서 벗어나 점차 ‘본능’과 대립을 하게 된다. ‘본능’과의 대립이 ‘의식’을 만든다. ‘자아의식’의 형성은 비로소 인간을 인간답게 하며 문화를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진다. ‘자아’가 ‘의식’을 갖는 것은 ‘본능’과의 대립적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위험을 자청한 것처럼 되어 버린다. 정신의 일부가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근원적 정신상태에서 가졌던 본능의 안전장치에서 벗어나 유약하고도 불확실한 영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아의식’은 그만큼 자유와 가능성에 놓이는 것이다. ‘자아의식’의 형성은 바로 홀로 세상에 서는 것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외로움을 강요하는 것이다. ‘자아’는 ‘의식’을 갖고 오로지 자신의 담력을 바탕으로 결정과 해결을 해야만 모든 무의식적 유아성이나 본성적인 것과의 결별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자아’가 ‘의식’을 갖고 등장하는 것은 인간에서 낙원에서 추방과 같은 것이고, 원죄를 저지르거나, 금기를 깨트린 것 같은 현상이 된다.

‘자아’는 ‘의식’을 획득하면서 자신과 타자를 인식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아동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었다면 심층심리학적으로 ‘의식’을 갖게 된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초로 획득한 의식성으로 ‘자아’는 외부대상을 아직 인식할 정도가 아니며, 심지어 앞서 경험했던 것들도 제대로 연결하여 보존할 수 없다. 그래서 ‘자아’는 겨우 자신의 존재를 떠올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아이가 자신을 제 삼자로 부르는 현상으로 드러난다. 이에 대해 융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할 수 있는 최초의 인식 형식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정신적 내용의 단순한 연계인 듯이 보인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의식은 아직 몇 개의 일련의 연계에 관한 표상에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산재되어 있고 후에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 실제로 한 살에는 연속적인 기억이 존재하지 않고 이때에는 기껏해야 광활한 밤에 몇 개의 불빛이나 불이 밝혀진 물체와 같은 의식의 섬이 있다. 그러나 이 기억의 섬은 가장 최초의, 단지 앞서 생각되었던 연계 내용이 아니고 새롭고 매우 본질적인 일련의 내용, 즉 생각나는 주체 자신, 소위 자아에 속하는 일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원래의 일련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열(列)은 단순하게 생각

1) Die Ehe als psychologische Beziehung G.W. 17, par. 326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은 시종일관 우선 삼인칭 혼잣말을 한다. 나중에 자아 계열 혹은 자아 콤플렉스가 분열을 통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얻게 될 때 비로소 주체 또는 자아 존재의 느낌이 생겨난다. 그것은 아이가 일인칭으로 스스로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일 것이다. 이 단계에서 기억의 연속성이 시작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아 기억의 연속일 것이다.<sup>2)</sup>

‘자아’가 경험된 사실에 대한 연속적인 기억을 가지게 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일인칭적 주체감이 획득되어야 가능하게 될 때이다. 말하자면 ‘의식’을 획득한 ‘자아’가 근원적인 상태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작용할 충분한 힘을 갖추었을 때 가능하게 된다. 이런 자아의 고유영역을 ‘자아 콤플렉스’라고 부른다.

‘자아 콤플렉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인격의 표면에 드러나며, 이로 인하여 다른 ‘콤플렉스’와 달리 유일하게 전체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적인 분화를 이룩한다. 한 개인의 인격에서 개체의 특성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자아 콤플렉스’가 ‘의식’의 의도로서 자유롭게 활동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아 콤플렉스’와 달리 다른 콤플렉스들은 상대적으로 의식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주로 ‘무의식’영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콤플렉스’들이야말로 실재의 정신의 내용을 형성하는 정신의 단위(Unit)들이다. 꿈을 살펴보면 극(劇)과 같은 무대에 ‘나’ 뿐 아니라, 다른 인물들도 함께 등장하는데, 꿈에 등장하는 나 외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이웃, 심지어 개, 고양이, 나무, 가구, 집 등 모든 것들은 제각기의 ‘콤플렉스’에서 기인한 심상들이다. 이처럼 한 개인의 정신은 무수한 ‘콤플렉스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콤플렉스’는 제각기 심상들을 생산하고, 그 심상들로 정신의 내용을 형성한다.

초기 아동기에 의식의 파편들이 모여서 ‘자아 콤플렉스’가 형성되기까지 꽤 시간이 소요된다. 아이는 3~4세에 이르러서야 겨우 ‘나’라는 주체로써 경험할 수 있다. ‘나’라는 주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기의 ‘자아의식’은 아직 활동의 완전한 주체가 되지 않는다. 겨우 ‘나’라는 주체의 영역이 드러날 뿐이다. ‘자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단무의식’이 제공하는 환경 속에 머물게 된다. ‘나’라는 주체감이 형성되면서 근원적 ‘집단무의식’은 자연히 상대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데 이는 주로 부모의 특징으로 표현된다. ‘자아’는 그곳에서 형성되었으므로 마치 자식과 같이 된다. ‘집단무의식’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자아’를 감싸고, 보호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나’라는 주체가 생겼으나, 제대로 분화하여 분리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부모의 심적 환경 속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춘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라는 개체로서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사춘기에는 성적 욕구가 생겨나는 등 신체적으로 성숙하게 되지만, 동시에 정신적 탄생도 있게 된다. 이때의 정신적 탄생은 부모가 된 ‘집단무의식’의 영향력으로부터 구별되는 영역으로 독립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춘기는 “생리적 혁명의 시기이자 동시에 정신적 혁명”의 시기인 셈이다.<sup>3)</sup> 사춘기에 일어나는 정신적 혁명은 6~7세부터 서서히 시작된 것이다. 6~7세의 아동은 유치원, 학교 등에 가게 되는데, 이 시기에 내재한 부모상(父母像)을 외부에 투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로써 아동은 실제의 부모상과 내면의 부모상을 분리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흔히 ‘미운 일곱 살’의 시기는 바로 부모상으로부터의 분리라는 문제가 드러나는 시기이므로 아이는 ‘아니’라는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내적 환경으로부터 ‘자아의식’의 적극적인 탈피를 시도하려하는 것이다. 아동은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자유의지의 느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부모와 갈등을 겪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2) Die Lebenswende, G.W. 8, par. 755

3) 전게서, par. 756

6~7세 때에 일어나는 부모상과의 분리는 결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근원적 '무의식'에 대립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시기에 아동의 상태는 본능에 대결하는 것이지만, 이것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본능에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비록 외부의 제약이 주관적 본능적 충동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억제나 제약은 스스로를 분열시킬 정도가 되지는 않는다. 이때의 아동은 충동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다른 외적 요구에 완전히 일치하게 되면서 가능한 분열을 피해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사춘기에 이르면 외부의 간섭이나 제약이 본능적 충동을 억압하기 시작하면 하나의 충동이 다른 충동에 대해 대항하는 형태가 되면서 정신의 내부는 서서히 복잡한 갈등의 구조로 변해간다. 한 충동이 다른 충동에 대해 서로 대립적이 되면서 마침내는 '자아' 자체가 2중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춘기의 정신적 혁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상태, 즉 내면의 분열은 자아계열과 유사한 정도의 제2의 계열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계열은 그것의 에너지적 가치 때문에 자아 콤플렉스와 동일한 기능적 중요성을 갖는다.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서 제1의 자아대신 안내를 떠맡아 줄 수 있는 다른 자아가 바로 제2의 자아이다. 이것으로부터 자기 자신과의 양분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sup>4)</sup>

다시 설명하면 '자아의식'이 의지력을 갖고 주도하게 되면서, 서서히 본능적 충동들을 억제하거나 수정하려 함으로써, 마침내는 본능은 대립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어 버린다. 이로 인하여 본능적 충동들은 강한 정동성의 '콤플렉스'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때의 '콤플렉스'들은 주로 '자아의식'의 활동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무의식'의 내용으로 오염시키고 마침내 '의식'을 공유할 정도로 침범한다. 사춘기에 이르면 '자아'는 '집단무의식'의 본능적 충동에 동화하지 않고 오히려 대립하면서 일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런 의미에서 융은 첫 번째 '자아의식'의 형태를 무정부적이거나 혼돈의 상태라고 하였는데 단순한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두 번째 단계의 '자아의식'을 개발된 '자아 콤플렉스'이지만, 전적으로 '자아'만을 고집하는 군주주의적 일원논리 상태라고 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는 다시 또 한 번의 '의식'의 발달이 있게 되면서, 기존의 '자아'와 새로 형성된 '자아'에 의하여 이중성의 의식 상태로 묘사하였다.<sup>5)</sup>

## 성인의 자아의식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아의식'의 발달사를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의식성을 획득한 자아가 '제2의 자아'로 발달하기까지의 첫 단계는 '집단무의식'의 상태에서 '자아'가 핵 요소가 되어 의식의 파편을 응집시켜 하나의 '콤플렉스'를 형성하는 기초를 형성하고 두 번째 단계는 '자아'가 하나의 독립된 '콤플렉스'로서 근원적인 '무의식'의 영향력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자기활동을 펼치는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자아'가 적극적으로 자기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본능'을 억제하며 분열을 조장하여 심지어 '자아'와 같은 정도의 다른 '콤플렉스'를 인격의 표면에 등장시키게 된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좀 더 설명이 필요

4) 전게서, par. 757

5) 전게서, par. 758

하다.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써 주어진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면서 점차 그 역할을 ‘나’라고 믿으면서 살게 된다. 바로 그 ‘나’는 탄생 후 ‘의식’을 획득하고 본능에 힘입어 분화를 거듭한 ‘자아’와 달리 이제는 전혀 본능에 따르지 않고 사회적 역할을 위하여 형성한 것이다. 그래서 성인기에 이르렀을 때 자신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보여지는 인격으로서의 ‘나’와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준적이 없는 ‘나’가 함께하게 된다. 융은 이 ‘제 2의 자아’를 ‘페르조나(Persona)’라고 불렀다. 그것은 ‘자아’의 바깥 인격, 즉 가면으로서 사회적인 역할을 할 때 개인성을 가장 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의 ‘콤플렉스’이다. 사춘기 이후 성인에 드러난 ‘제 2의 자아’ 혹은 ‘페르조나’는 외부 환경의 적응의 결과가 아니라 순응의 결과이다. 그러나 ‘자아’ 자체의 이중적 분열은 ‘자아의식’의 발달상에 있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것이며, 정상적인 것이다.

사춘기를 넘어 성인기에 이르면 인간의 정신구조는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대립구조가 뚜렷해진다. ‘자아의식’의 정립 및 분화자체가 ‘의식’과 ‘무의식’의 대극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2의 자아’의 형성으로 ‘의식’과 ‘무의식’의 대립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처음의 ‘자아’의 형성은 어떤 면에서 본성에 위배되지 않은 분화 발전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 2의 자아’의 형성은 한 개인을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주지만, 본성과 대립되는 특성을 나타냄으로써 점차 내적 갈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자아의식’의 분화 발전에 있어서 자주 나타날 수 문제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다. 보통 아동의 경우 부모의 지나친 간섭에 의해 본능적 충동이 좌절되면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어린 아동의 경우 본능적 충동의 이유 없는 억제나 실현의 유보는 ‘자아’가 안정되게 자신의 영역을 성립할 기회를 잃고 만다. 외부의 자극이나 요구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적당한 외부의 자극이나 요구는 아동으로 하여금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하도록 촉구하는 힘으로 작용하지만, 지나치면 점차 어린 시절의 꿈을 중단하게 하는 삶의 요구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이 이런 요구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삶의 전제를 갖게 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충분히 그 개인의 내부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아동에게 외적 요구가 주어지고, 그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힘이 없으면, 아동은 자신도 모르게 자구책으로 외부의 요구에 대해 과소평가나 과대평가 혹은 부당한 낙관주의나 비관주의로 대처하게 된다. 외부에 주어진 것이나 외부의 요구에 대해 주관의 전제 조건과는 언제나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심지어 실제 외부에 대해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엄청난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청년기에 드러나는 문제는 외적 요구와 내적 대응사이에 갈등을 겪으면서 더 성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더 성장하려 하기 보다는 어린 시절의 ‘의식’ 수준을 고수하려는 경향으로 드러난다. ‘집단무의식’은 언제나 어느 면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게 만든다. 자아가 근원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야 말로 성장하려는 발걸음을 딛는 것이 된다. 만약 ‘집단무의식’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으면 성장이나 변화는 어렵다. 그러나 ‘자아’가 그런 대담한 발걸음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 더구나 청년기는 본격적으로 ‘자아의식’이 스스로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저하고, 지연하는 형태로 드러나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청년기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무의식’의 보수성에 힘입어 ‘자아’는 기존의 자신의 것만을 고수하고 낯선 것, 새로운 것을 거절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아니면 ‘자아’가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거나 최소한의 욕망만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일부 청소년들이 컴퓨터, 만화, TV, 비디오 등에만 반응하고 향유하려하고 더 이상 다른 것을 배우려 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청소년기의 특징을 대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년기에 나타나는 ‘집단무의식’의 특성은 ‘자아’의 보수성으로 드러나고 마는데 결과적으로 ‘자아’는 상대적으로 매우 편협하고 위축되고,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버린다.

성인기에 가장 잘 드러나는 이중 ‘자아’의 상태는 어느 면에서 편협하고 위축된 청년기의 ‘자아’를 넘어서 새롭고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자아(das Auch-Ich)’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기에는 말 ‘자아’의 확대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적응이나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춘기를 넘어서 청년기에 이르러 ‘또 하나의 자아’를 형성하면서 보수적인 ‘무의식’의 성향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더 성장해 가면서의 문제는 너무 지나친 적응, 즉 순응 상태에 이르면서 단순히 새로운 ‘자아’를 형성한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자마자 기존의 과거의 ‘자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분명히 ‘자아’가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한 것이지만, 낯고 부적절하게 보이는 옛 ‘자아’를 없애버림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잃는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그럼에도 청년기는 새로운 ‘자아’ 형성의 출발점이다. 청년기의 문제는 새로운 것, 낯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과거에 머물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새로운 것에 완전히 동화해서 자신의 과거에서 도망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시기이다. 이들은 결국 둘다 성인기의 신경증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미래의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협소한 ‘자아’에 머물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과거의 것을 말살하려고 함으로써 협소한 ‘자아’에 머물고 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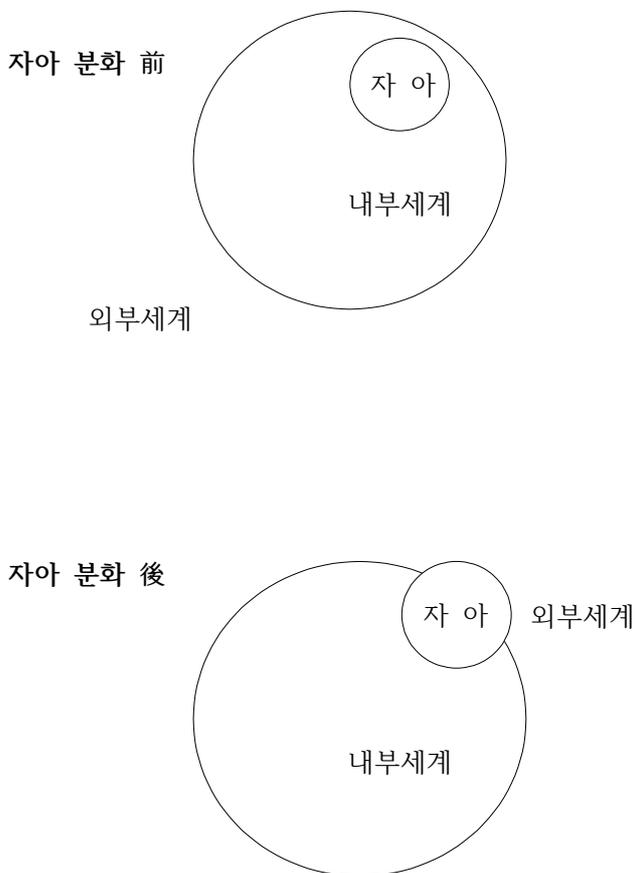
결국 ‘자아의식’의 성숙과 발전은 어느 특성의 신념이나 이념에 맞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느 특성의 신념은 어느 시기 동안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소용없는 삶의 전제가 되고, 나중에는 오히려 걸림돌이나 편견, 보수적 성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계속적인 ‘자아의식’의 발달은 새로운 의미와 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늘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과의 대화와 모색을 삶에 반영하는 과정으로써 경험되어야 한다.

그러나 생의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주로 살아오면서 유리했던 신념이나 습관들을 고수하면서 그것이 삶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삶의 이상적인 원칙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청년기에서부터 서서히 시작된 ‘제 2의 자아’의 믿음이며, 이 ‘제 2의 자아’의 믿음은 사회적 목표의 달성 때문에 인격의 전체성을 회복할 수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 따라서 약 35세 이후 이에 대해 교정하려는 내면의 강력한 요청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내면의 요청은 신경증적 증상들로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니지만 점점 두드러지게 ‘제 2의 자아’를 방해하는 현상으로 드러난다. 그럼에도 ‘제2의 자아’가 여전히 믿음을 고수하고 있다면, 그것은 50세의 편협함과 맹신주의로 나아가는 기초가 된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한다.

융은 개별 자아의식을 태양이 뜨고 지는 것과 비교하여 인생여정의 전체 과정을 크게 넷으로 나누었다. 첫 1/4에 해당하는 시기는 ‘자아의식’에 해당하는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여 대양의 수면에 반쯤 잠겨서 겨우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려는 상태로 간주하였다. 이때의 ‘자아’는 전혀 자신에 대하여 잘 모르는 시기이고, 주로 ‘집단무의식’의 활동에 힘입어 자신을 드러낼 싹을 틔우는 시기이다. 다음 1/4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근원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자아’는 자신의 힘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는 태양이 하늘 떠올라 한 가운데 걸려 있는 상태와 비유 될 수 있다. 이때의 ‘자아’는 고유한 의식성으로 점차 자신의 모습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제 2의 자아’를 형성하려는 시기가 될 것이다. 결국 정오의 태양은 ‘제 2의 자아’에 의하여 부각될 것이다. 그 다음 1/4에 해당하는

시기는 태양이 서서히 정오를 지나 기울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과 유비될 것이다. 이때는 '제 2의 자아'가 완전히 한 개인의 인격처럼 자리를 잡는 때가 된다. 그래서 한 개인을 '제 2의 자아'가 전적으로 대변한 것처럼 되면서, '무의식'과는 대극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마지막 1/4의 시기는 태양이 떠오르던 때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에서 다시 대양에 얼굴을 잠기게 하는 시기에 유비된다. 이로써 '제 2의 자아'가 '집단무의식'에 의하여 다시 잠식되는 때를 나타낸다.

위의 네 과정은 태양이 뜨고 지는 순환처럼, 혹은 네 계절을 이루는 자연의 순환처럼 일어나는 '자아의식'의 분화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1/4의 단계는 노령기의 성인의 '자아의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아의식'이 거대한 대양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근원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종교 수련에서 더 높은 정신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하여 정신의 자기 '귀환'이라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분석심리학적으로 위의 네 단계의 과정은 '개인의 전(全)-인격화(Individuation)'의 과정으로 표현된다.



## (1) 페르조나(Persona)

- 성인기에 이르면 자아는 페르조나와 동일시한다.
- 페르조나는 사회에 적응하여 성취한 역할에 해당한다.
- 페르조나는 집단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 기대에 부응하는 인격이다.
- 기능수행과 관계하는 마나(Mana) 인격이다.
- 페르조나는 개성이나 차별적 특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

## (2) 그림자(Schatten, shadow)

- 개인무의식의 그림자
- 집단무의식의 그림자
- 사회적 존재가 되는 과정에서 개별 인격의 특성이 열등한 것으로 여겨져서 억압된다.
- 억압되지 않은 집단정신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그림자도 있다.
- 열등감, 죄책감, 양심의 문제와 관계한다.
- 그림자는 자기(Selbst, Self)에 관한 자아의식의 태도로서 드러난다.
-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다.
- 그림자의 통합은 자아가 진정한 의식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 (3) 아니마(anima)/아니무스(animus)

- 남성속의 여성성/여성속의 남성성
- 페르조나에 대한 무의식의 보상적 기능을 하는 원형이다.
- 아니마는 주로 기분, 분위기로 드러난다. (Laune, mood)  
인물상이 될 때는 여성으로 표현된다.
- 아니무스는 주로 의견 및 생각으로 나타난다. (Meinung, opinion)  
인물상이 될 때는 남성으로 표현된다.
- 아니마는 감정을 선취하고, 감정을 투사하여 여성과 남성 사이에 개입하고,  
아니무스는 의견을 선취하여, 의견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개입한다.

## (4) 아니마/아니무스에 의한 사로잡힘(Besessenheit, possession)

- 페르조나의 동일시에 해당하는 아니마/아니무스에 의한 사로잡힘이 있다.
- 성인기의 자아는 집단정신과 동일시 된 페르조나이거나 아니마/아니무스의 상태이다.
- 흔히 아니마/아니무스를 자아의 성격적 특성으로 간주한다.
- 부모상과 분리되지 않을 경우에 주로 일어난다.

## (5) 자아의식의 태도변화를 위하여

- 개인무의식의 내용(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해야 한다.
- 페르조나와 나 자신을 구분해야한다.
- 아니마/아니무스를 객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 페르조나와의 동일시가 심인성 우울증을 야기한다.
- 아니마 아니무스의 내향적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 페르조나의 해소 및 의식의 일방적 주도적 태도의 변화
- 아니마/아니무스의 인격화된 모습은 사라지고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 기능으로 변화한다.
- 기분변화/자기통찰의 가능성/새로운 심적 균형
- 인격의 중심은 자아의식이 아니라, 전체 인격의 중심으로 옮겨진다.